

열대풍토병에 관하여

(열대지방 여행시 조심해야할 질병) 제 5회

발진티프스와 발진열

- 발진티프스는 세계각지에 국지적으로 유행되고 있다. 이(虱)에 의해서 전염되므로 추운지방에 많은 질병이다.

1~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돌연 고열, 두통, 요통, 사지통을 일으키면 1~3일째 피부에 출혈을 동반한 발진이 생긴다.

혈압이 떨어지는등 순환계장애로 죽는 경우도 있다.

- 발진열은 세계도처에 존재하며 주로 벼룩에 의하여 전염되나 이나 진드기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며, 두통이나 발진을 동반한 가벼운 질병이다.

발진티프스, 발진열의 치료는 항생물질이 유효하고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고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예방조치로서 이나 진드기를 구제해야한다.

뎅기열

- 동남아지역을 비롯 인도, 뉴기니아, 호주북부, 아프리카대륙등에 분포

되어 있으며 이테스 모기가 매개한다.

증세는 5~9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두통, 오한이 2~3일 계속되며 체온은 39~40°C까지 오른다.

주증세는 두통, 관절통, 안구통등이고 코피도 나다.

치료 및 예방은 대중적 치료뿐이나 아스피린, 진정제등을 투여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주혈흡충증

- 세계적으로 2억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어 있으며 종류는 일본, 만손썬, 빌할쯔, 인터칼라%, 메콩주흡충증 등 5종류가 있다.

- 일본주혈흡충은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하며, 패류(우렁이)에서 발육한 유미유충이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감염을 일으키며 이질성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 질환이다.

증세는 피부염, 소염증, 발열, 오심, 복부불쾌, 설사, 기침 등을 한다.

- 마손씨주혈충증은 아프리카, 중동 지역, 남미에 분포하며 약 6,000만명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

증세는 일본주혈흡충증과 비슷하다.

- 빌할쯔주혈흡충증은 전아프리카, 중동, 인도에 분포하며 가장 중요한 증세는 혈뇨이다.

- 인터칼라%주혈흡충증은 중동 및 서부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 유행하며 메콩주혈흡충증은 라오스, 캄보디아, 태일랜드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임상증상은 일본 주혈흡충증과 유사하며 간비대, 복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주혈흡충증은 프라지%텔제체가 치료에 주효하다.

- 예방은 유행지에서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비대흡충증

- 중국, 대만, 월남, 태극 등에 분포하며 비대흡충란이 패류에 들어가 셀카리아로 발육한 뒤 수생식용식물에 피낭유충으로 부착감염되어 있다. 이를 사람이 먹을때 감염이 성립된다.
- 증세로는 복통을 동반한 설사, 부종 등을 일으킨다.
- 치료제로는 테트라클로에티렌, 디크로토펜, 프라지퀼텔 등이 있다. 예방은 끓는 물에 채소를 수조간 담구었다가 식용한다.

메디나충증

- 아프리카대륙에서 나일강유역, 중앙적도 아프리카, 북서 및 서해안지역, 세네갈, 이란, 파키스탄 등에 분포한다. 감염경로는 감염된 물벼룩이 음료수와 함께 들어와 감염된다. 암컷은 길이 100cm 이상, 폭 1.5mm의 가늘고 긴 벌레이다.
- 증세는 오심, 구토, 설사, 호흡곤란, 적색구진을 나타내고 병변은 발바닥 혹은 발목의 증족골사이에 가장 흔하다.
- 치료제는 니리다졸, 다이아벤디졸, 메트로니다졸 등이 쓰인다. 충체는 잡아당겨서 작은 막대에 감아서, 제거해야 한다.
- 예방은 유행지에서 생수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